
2022년 제2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5. 27. ~ 6. 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5. 27.	시청률	0.000

【총 평】

‘경제&이슈’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전·월세 대책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전망해 보았다. 분양가상한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개편의 기본 골자라고 정리해 준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을 통한 전·월세 대책 방안들이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해 보았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위한 제도 등이 주목도를 높였다.

‘알뜰신잡’에서는 병원비를 환급 받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려주었다. 지난 해 부담한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을 초과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구성 및 내용】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다. 정부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공공기관의 공급이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크게 확대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6월로 앞당기고,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 대책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을 통해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를 고치는 것도 공급확대에 맞춰져 있다. 건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적극 반영해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급이 늘면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도 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빨리 개편해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개편의 기본 골자다.

정부는 전·월세를 종전과 비슷한 수준에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세값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있어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을 6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 대상 상한액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상한을 80%까지 확대하고 청년 전용 주택 연계한 대출상품 신설,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우대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5. 27.	시청률	0.008

【총 평】

과대포장된 플라스틱 포장재와 비닐을 매장에 되돌려주는 "깍데기는 가라!"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지구와 공존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국민관심사로 떠오른 청와대 개방 이슈와 인근 상권 활성화 등 개방 효과를 심층적으로 연속보도했다. 이밖에 산불 피해지역을 살리는 '동해안 여행 캠페인'과 자연 속 역사 체험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은 여행 소재 속에 힐링과 역사 체험 메시지를 담아 유의미했다. 특히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구릉과 태릉 등 숲길, 산책길의 아름다움이 영상을 통해 충분히 전달됐고, 관광명소가 된 청와대 모습을 본관, 영빈관, 인수전, 상춘재, 녹지원 중심으로 세심하게 담아냈다. 이밖에 구로보건소 수유실의 쾌적함과 편리함이 잘 전달됐다.

【구성 및 내용】

■ "깍데기는 가라!"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전북 전주시 완주 로컬푸드 매장에서 플라스틱 어택 운동 캠페인이 진행됐다. 플랜트 액트에 소속 청년들이 추진한 캠페인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포장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반환하고 에코백에 담아갔다.

■ 조선-미국 수교 140주년, 당시 태극기 도안 '눈길'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실린 태극기가 전시되었다. 지난 세월 근현대사 속에 우리나라를 상징해 온 태극기 전시가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 "청와대에 가보자!" 대한민국 관광명소로 '활짝'

74년 만에 열린 청와대에 연일 수많은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관람객들은 본관으로 이어지는 정문과, 서쪽 영빈관이 있는 영빈문, 동쪽 춘추관이 있는 춘추문, 3곳을 통해 들어가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39,000명까지 입장가능하다.

■ '청와대 개방' 주변 상권 들썩들썩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주변 상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촌에서 쇼핑을 하면서 식당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경복궁역 주변, 효자로 일대의 상권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개방 이후 경복궁의 하루 관람 인원수는 최대 4배까지 급증했다.

■ 산불 피해 지역 살리는 '동해안 여행 캠페인'

산불 피해 지역 여행이 자원봉사이자 기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자연 속 역사 체험,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널리 알리고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면서 휴식과 치유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선왕릉 숲길 아홉 곳이 개방됐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5. 28.	시청률	0.020

【총 평】

‘외국인을 위한 K-문화유산 여행지’편에서는 방한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4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유명 여행지 소개와 외국인이 보고 싶어하는 연등회 체험코너를 통해 한국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특히 한라산 백록담, 불국사 전경 및 석가탑, 순천만 갈대밭 및 철새 도래지, 보라색 마을, 연등회 야경 등의 볼거리와 순두부찌개, 떡갈비, 야채 햄버거, 연밥 등의 먹거리를 소개했다. ‘생생 K컬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행지 3곳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한국의 갯벌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 흡인력을 높였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는 인도의 불교철학교수가 요청한 연등회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연등 만들기 체험과 사찰음식 먹방까지 소개해 외국인 수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 제주도 사투리 구사, 복불복 관광지 뽑기 등 예능적 요소가 흥미를 더 했다.

【구성 및 내용】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총 15건이 등재되어 있다. 합천 해인사,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부터 한국의 서원, 갯벌,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한국의 갯벌을 소개했다.

미국 CNN은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인상적인 용암 동굴 중 하나로 성산일출봉, 한라산이 있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라고 언급했다. 2007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성산일출봉은 360개의 오름 중 하나로 거대한 성곽처럼 웅장한 느낌을 준다. 거문오름 용암동굴은 뱅뒤굴, 만장굴, 긴녕굴 등이 포함되는데 천연동굴 탐험지로서 이색체험을 할 수 있다.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은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등재된바 있다. 불국사는 세계 최초 목판 인쇄물인 불교 경전이 발견되기도 했고 7점의 국보와 6점의 보물이 있다. 석굴암은 토함산 중턱에 있는 암자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을 실현한 유산으로 꼽힌다.

한국의 갯벌은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 총 4곳이다. 순천갯벌은 세계 5대 습지로 꼽히는데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하다. 특히 생태 체험선을 타고 순천만을 둘러볼 수 있다. 신안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갯벌 중 가장 큰 규모로 청정 생태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는 부처님 오신 날 한국은 매년 연등회를 개최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연등회를 소개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연등회는 약 1200년의 역사를 가진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연등을 들고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연등 만들기 등 특별히 외국인을 위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외 사찰음식으로서 햄버거를 선보이기도 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5. 28.	시청률	0.025

【총 평】

‘실패를 배낭에 메고 지리산에 왔어요.’편은 신춘문예에서 32번이나 고배를 마시며, 소설가를 꿈꿔왔던 주인공이 꿈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낙인찍으며 원둘에 떠난 아이슬란드 배낭여행에서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가치를 경험한 주인공의 도전은 시청자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소구력이었다.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삶의 의미, 실패를 배낭에 메고 떠난 아이슬란드 여행이 인생을 바꾸었다는 주인공은 아이슬란드 여행경험을 토대로 ‘아이슬란드 여행기’를 집필했다. 주인공은 지리산 민박집을 운영과 창작 활동을 하며, 10년 후 70세에는 홀로 세계 일주를 떠나고 싶다는 바람은 삶의 다양한 시선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실패를 배낭에 메고 지리산에 왔어요.’는 신춘문예에 32번이나 응모했던 주인공이 아이슬란드 여행을 통해 실패가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선회해 지리산 자락에 살게 된 이야기가 시청자에게 인생의 실패 하나를 공감하게 만들었다. 지리산 뱀사골 원천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개인 방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차박 여행을 통해 자유를 느끼며 캠핑카를 사서 세계 여행을 꿈꾸는 자유로운 인생을 느낄 수 있었다.

“신춘문예에 32번 응모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노안과 함께 이렇게 늙을 때까지 이 걸 했구나,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깨달은 거죠.”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1년에 세 편의 작품을 신춘문예에 응모한 주인공은 낮에는 공사판 노동을 하면서도 밤에 글을 쓰는 일을 계속했다. 11년 전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 귀촌을 결심하고 낡은 한옥을 고치면서 틈틈이 소설 쓰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육체적인 늙음을 깨닫게 된 순간 자신이 실패자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순간 아이슬란드 여행을 결정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권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더 실패한 사람은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아이슬란드로 떠나 70여 일을 여행한 그녀는 이후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신춘문예는 32번이나 고배를 마셨지만 ‘아이슬란드 여행기’는 2017년 작가 강은경의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주인공은 성공과 실패로 삶을 재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고 있다며, 매순간 삶에 희열하며 다정한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은 바람이다. 주인공의 삶을 변화시킨 한 마디는 “꼭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였다.

주인공은 10년 후 70세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캠핑카를 구입해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하나의 꿈을 고집하며 살았지만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해 인생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지만 성공과 실패로 삶을 재단하지 않고, 매 순간 살아 있음에 희열하며 다정한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어 한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5. 29.	시청률	0.077

【총 평】

‘친북’에서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배경을 심층 진단하고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에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한 데 따른 한미 두 동맹의 신속한 대응 조치를 다루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대북 강경 기조, 확장 억제수단으로 핵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의미를 분석해 점이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미 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설득력을 높였다. ‘이슈 텔링’은 대북제재 속 북한의 건축을 소개했는데 정치적 의미의 건축물, 사회주의 특유의 건축방식, 북한의 건축 정치, 북한 건축의 특징 등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밖에 한미정상회담 기간 북한의 무력시위는 왜 없었는지, 김정은이 장례 치른 현철해는 누구인지, 김정은에 대한 바이든 메시지, 애물단지 류경호텔 등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재가 관심을 유발했다.

【구성 및 내용】

새정부 출범 11년 만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새로운 대북기조를 공유했다. 이에 한미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공고히 하고 대북 강경기조를 공유했는데 핵에는 핵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범주를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국은 핵 개발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개발은 할 수 없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위한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현철해가 5월 19일 사망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여 관을 들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무력시위의 시기와 수위를 고민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인 5월 25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기를 발사했다. ICBM 발사는 유엔안보리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NSC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의 집무실 위에 뒀던 탁상용 명패를 선물했는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뜻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번 강경기조에 대해 북한의 도발적 무력시위가 국제사회 규정을 위반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강행하는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평가다.

‘이슈 텔링’은 북한이 대북제재 강화속에 건축에 힘을 쏟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주거건물, 식당, 놀이시설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독재국가는 지도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 건축을 활용한다. 김일성 주석부터 대형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고 김정일 위원장은 선전용 대형 건축물 건설에 몰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 역시 놀이공원, 스키장, 물놀이 시설 등 대형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다. 한편 새롭게 나타난 북한 건축 양식을 보면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등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최근 많아졌다. 이는 밝은 색상을 통해 걱정 없는 북한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5. 29.	시청률	0.005

【총 평】

‘괭이바다에 수장된 학살의 진실 - 창원 민간인 희생 사건’은 70여년 전 좌익활동을 하거나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들어 군경에 연행돼 무참히 희생된 민간인 사건을 집중 조명해 공권력의 위법성과 민간인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을 역사적 반면교사로 부각시킨 기획이 뛰어났다. 민간인이 왜 군경에 연행되고 한국전쟁 발발로 급히 집단학살이 진행되는 처참한 과정이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재구성된 점이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잘못된 국가권력이 희생자와 그 가족,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다는 역사적 교훈을 일깨웠다. 진실화해조사위원회의 마산창원보도연맹사건 조사 결과 4차례 집단학살로 7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드러난 점이 충격적이었고 희생된 독립운동가는 유족들의 노력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하고 생가와 묘비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 ‘화해’의 의미를 보였다.

【구성 및 내용】

‘괭이바다에 수장된 학살의 진실 - 창원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발생한 마산형무소 수감자들의 총살 등의 희생사례와 진실규명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독립운동을 했던 심진표 씨의 아버지, 마산고 교사로 근무했던 노치수 씨의 아버지, 공장을 운영하던 이령자 씨의 아버지 등에 대한 피해사례를 중점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해앞바다, 괭이바다 등에서 총 4차례의 집단 학살이 있었음을 규명했는데, 희생자들은 마산 형무소에서 약 40분이 소요되는 마산항 제1부두에서 괭이바다로 실려 나갔다.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으로 마창지역에서 최소 700명 이상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진표 씨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1940년부터 일본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기밀문서 발각으로 체포되었다. 마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로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의 독립운동 자료를 모아 공로를 인정받고 훈장이 추서되었다. 1950년 8월 마산 앞바다에서 총살되어 수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에 거주하는 노치수 씨의 아버지도 마산 앞바다에서 희생되었다. 아버지는 해방 후 마산고 교사로 재직하다 1948년 4월 구속되어 교직에서 해고되었다. 1950년 7월 소집명령으로 집을 나선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거제로 피난 갔다 다시 돌아오니 총살되어 수장되었다는 소식만 전해졌다.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는 70여년 전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있다. 어릴 적 곡안리에 거주했던 정용문 씨의 아버지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교육 소집명령을 받고 면사무소로 간 뒤 소식이 끊겼다. 상남동에 거주하던 이령자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CIC에서 연행한 이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방송일자	2022. 5. 29.	시청률	0.001

【총 평】

‘돈이 되는 분리수거’편에서는 분리수거 시스템에 분리수거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든 기업 대표가 출연했다. 특히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 포인트 방식을 소개하며, 환경참여를 통해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IoT와 AI기술을 활용해 분리수거 전용 회수함을 만들었고 그 회수함을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소비자가 재활용품을 기계에 반납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세상에 없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제안하다 보니 거절이 일상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여할 정도로 괄목할 성장을 일궈냈다.

【구성 및 내용】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 중립’ 그 첫 시간으로 ‘돈이 되는 분리수거’ 편을 방송했다.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가 출연해 분리수거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리수거를 하면 포인트가 쌓여 어플리케이션 내 쇼핑 채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제휴되어 있는 온오프라인 마켓과 연동해 쿠폰이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리수거에 의무감으로 참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 동기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참여를 북돋아 주기 위해 보상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IoT와 AI 기술을 활용해 분리수거장에 전용 회수함을 설치해 그 곳에 투입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 재활용 자원은 전용 회수 라인을 통해 재활용공장까지 전달된다. 재활용 과정 중 찾아낸 소비패턴을 데이터화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스타벅스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선보여 이슈가 되었는데 컵 반납기 구축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제품 전시회인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전시기업으로 참여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제품을 소개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으며, 화학적 재활용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기업이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미국 진출 큰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일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바꾸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음식용기도 다회용 용기로 바꿀 수 있다. 기존의 재활용 기계에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반납하게 되면 소비자는 용기 값을 돌려받고 배달 업체는 용기를 돌려받아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작년과 대비해 인원과 매출이 급성장했다. 공동창업자 3명이 시작해 지금은 4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수평적 사내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구의 숨은 환경 지킴이들이 신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분리수거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5. 29.	시청률	0.000

【총 평】

‘코로나19 봄 돌아온 일상’은 2년 여 만에 해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으로 돌아온 사회 각 분야의 모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들여다보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을 회복한 시민, 정부의 코로나 대응 체계 재정립 등으로 구성된 점이 흡입력을 높였다. 또 야구장, 대학, 음식점 등에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모습을 담아내며 다시 돌아온 일상의 소중함이 공감도를 높였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코로나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고 그동안 실시한 거리두기 결과를 분석해 8월 중 새로운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일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는데, 지난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부터 2022년 봄에 이르는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 최초 발견, 신천지 교회 발 1차 대유행 시작, 사랑교회 발 2차 대유행 정점, 3차 대유행 정점, 4차 델타변이 유행 거리두기 4단계, 5차 오미크론 우세종 발표와 확진자 증가 등 코로나 확산에 대한 변화를 정리해 몰입도를 높였다.

오랜만에 관객이 꽉 들어찬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관람객들은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지르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시 되찾은 경기장의 열기를 즐기고 있다. 코로나 학번들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도 전에 비대면 강의를 경험하고 대학생의 낭만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3학년을 맞았지만 다시 되찾은 캠퍼스의 일상이 설렌다고 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각종 지역 축제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가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다시 활기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췄던 공연 예술이 다시 시작되서 다행이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니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했다. 따라서 실외다중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의 참여할 때는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수이다.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는 “현장에서 보면 메르스나 이런 전염병은 후유증이 많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상당한 증상들이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재정립했다. 지난 4월 27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한 마디로 관리체계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기구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